



전북농협과 군산농협은 20일 군산시 조촌동 군산농협 본점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

전북·군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군산농협(조합장 박형기)은 20일 군산시 조촌동 군산농협 본점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 김영일 군산시 부의장, 정재호 전북농협 본부장, 박형기 군산농협 조합장 등이 함께 로컬푸드 농산물 홍보에 나섰다.

전체면적 680㎡ 규모로, 당일 250여 농가의 신선농산물과 지역 내 마을기업

등 농촌융복합기업 제품을 두루 갖춘 로컬푸드 직매장 175m²를 중심으로 한 하나로마트와 휴식공간인 카페미곡창고, 야외테라스(2층)가 마련되어 있다. 기존 27년 동안 영업을 해왔던 금융점포는 2층으로 이전해 한 곳에서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또한, 수송·미장지구와 디오션시티 사이에 위치하고, 주변에 시청, 법원, 교육청, 세무서 등 주요 관공서가 있어 많은 유동인구로 소비층이 확대되면 로컬

푸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기 조합장은 “로컬푸드는 지역을 살리는 구심체”라면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해 소비자의 신뢰를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농협은 군산시 푸드플랜과 연계 사전 잔류농약 관리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출하농가와 연계한 소비자 체험활동, 군산농협 문화대학과 연계한 이벤트 홍보활동 등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